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4년 5월

신심 미사 사도들의 모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2-14; 2,1-4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¹²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¹³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¹⁴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2,1}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7(86),1-2.3과 5.6-7(◎ 3)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또는 ◎ 알렐루야.)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
-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시온을 두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
-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 가며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샘은 모두 네 안에 있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의 모후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성모 마리아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피로이 서 계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9,25-27

그때에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일 목요일 노동자 성 요셉

제1독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6-2,3<또는 콜로 3,14-15.17.23-24>

²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²⁷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²⁸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²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³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³¹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셋날이 지났다.

^{2.1}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² 하느님께서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³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0(89).2.3-4.12-13.14와 16(◎ 17ㄴ 참조)

- ◎ 주님,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 주님,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또는 ◎ 알렐루야.)

복음 환호송

시편 68(67),20

- ◎ 알렐루야.
- 주님은 날마다 찬미받으소서. 우리 짐을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54-58

그때에 ⁵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⁵⁵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⁵⁶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⁵⁷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⁵⁸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

제1독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27-33

그 무렵 경비병들이 ²⁷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 의회에 세워 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²⁸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²⁹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³⁰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³¹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³²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³³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4(33),2와 9.17-18.19-20(◎ 7ㄱ)

-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또는 ◎ 알렐루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알렐루야.

복 음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31-36

³¹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³²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³³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³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³⁵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³⁶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일 금요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제1독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물리 나왔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34-42

그 무렵 ³⁴ 최고 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³⁵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³⁶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에 사백 명과 양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³⁷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래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³⁸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³⁹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 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⁴⁰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⁴¹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리 나왔다.

⁴²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7(26), 1.4.13-14(◎ 4ㄱㄷ)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복음 환호송

마태 4,4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15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²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³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⁴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⁵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⁶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⁷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 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⁸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⁹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¹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¹¹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¹² 그들이 배부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¹³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¹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3일 토요일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8

¹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²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³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⁴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⁵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⁶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⁷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⁸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2-3.4-5ㄱ나(◎ 5ㄱ)

- ◎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네. (또는 ◎ 알렐루야.)
-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앓을 전하네. ◎
-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 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 나가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4.6.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필립보야,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4,6-14

그때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⁶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⁷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⁸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¹³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¹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4일
부활 제3주일
(생명 주일)

제1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4.22~33

오순절에, ¹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²²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²³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²⁴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²⁵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²⁶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²⁷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²⁸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²⁹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³⁰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³¹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³²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³³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15),1-2과 5.7-8.9-10.11(◎ 11과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17-21

사랑하는 여러분, ¹⁷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¹⁸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¹⁹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워한 것입니다.

²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²¹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루카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¹³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¹⁴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¹⁵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¹⁶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⁷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¹⁸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리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¹⁹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²⁰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²¹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²²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²³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²⁴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²⁵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²⁶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²⁷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²⁸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²⁹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³⁰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³¹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³²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³³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

여, ³⁴ “정녕 주님께서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³⁵ 그들도 길에서 쥘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5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

제1독서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6,8-15

그 무렵 ⁸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⁹ 그때에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¹⁰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¹¹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¹²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 의회로 끌고 갔다.

¹³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¹⁴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¹⁵ 그러자 최고 의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9(118),23-24,26-27,29-30(◎ 1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또는 ◎ 알렐루야.)
- 권세가들 모여 앉아 저를 헐뜯어도, 이 종은 당신 법령을 목상하나이다.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 그 법은 저의 조언자이옵니다. ◎
- 저의 길을 아뢰자 당신은 들어주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목상하오리다. ◎
-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저는 진실의 길을 택하였고, 제 앞에 당신 법규를 세웠나이다. ◎

복음 환호송

마태 4,4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2-29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²²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²³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²⁴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²⁵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²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²⁷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²⁸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²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6일

부활 제3주간 화요일

(한국 103위 순교 성인 시성일)

제1독서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51—8,17

그 무렵 스테파노가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말하였다. ⁵¹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⁵²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⁵³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⁵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⁵⁵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⁵⁶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⁵⁷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⁵⁸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겐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⁵⁹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⁶⁰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8.1}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1(30), 3다르-4.6과 7나과 8ㄱ.17과 21ㄱ나(◎ 6ㄱ 참조)

-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6,3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5

그때에 군중이 예수님께 ³⁰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³¹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³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³³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³⁴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³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7일

부활 제3주간 수요일

제1독서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1-8

¹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²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³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⁴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⁶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⁷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⁸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6(65),1-3,7,4-5,6-7(◎ 1)

-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복음 환호송

요한 6,4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본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³⁵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³⁶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³⁷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³⁸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³⁹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⁴⁰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8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

제1독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었습니까?>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26-40

그 무렵 ²⁶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길이다.”

²⁷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²⁸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²⁹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³⁰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³¹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³²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³³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³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³⁵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³⁶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³⁷⁾

³⁸ 그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³⁹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⁴⁰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6(65),8-9.16-17.20(◎ 1)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 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

-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44-51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⁴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⁴⁵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⁴⁶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과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⁴⁷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⁴⁸ 나는 생명의 빵이다. ⁴⁹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⁵⁰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9일

부활 제3주간 금요일

제1독서 <그는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9,1-20

그 무렵 ¹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²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

이었다.

³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⁴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⁵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⁶ 이제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 줄 것이다.”

⁷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⁸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⁹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¹⁰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¹¹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¹²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¹³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¹⁴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¹⁵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¹⁶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¹⁷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¹⁸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¹⁹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²⁰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7(116),1.2ㄱ-ㄴ(◎ 마르 16,15 참조)

-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6,5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2-59

그때에 ⁵²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⁵³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⁵⁹ 이는 예수님께서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0일

부활 제3주간 토요일

제1독서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9,31-42

그 무렵 ³¹ 교회는 유대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³²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³³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팔 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³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애네아스가 일어났다. ³⁵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³⁶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³⁷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 방에 눕혀 놓았다.

³⁸ 리따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³⁹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 준 속옷과 겹옷을 보여 주었다.

⁴⁰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⁴¹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 주었다.

⁴²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12-13.14-15.16-17(◎ 12)

-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또는 ◎ 알렐루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60-69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⁶⁰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⁶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⁶²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⁶³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⁶⁴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⁶⁵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⁶⁶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⁶⁷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⁶⁸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⁶⁹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1일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4ㄱ.36-41

오순절에, ¹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³⁶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³⁷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꺾일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³⁸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³⁹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⁴⁰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⁴¹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20ㄴ-25

사랑하는 여러분, ²⁰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²¹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²²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²³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²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²⁵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양들의 문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²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³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⁴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⁵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⁷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
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
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2일

부활 제4주간 월요일

제1독서 <이제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1-18

그 무렵 ¹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
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²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
례 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³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⁴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
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⁵ “내가 야포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아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
였습니다. ⁶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⁷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
다. ⁸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⁹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
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¹⁰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¹¹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카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¹²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¹³ 그는 천사가 자기 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
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
게 하여라. ¹⁴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 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¹⁵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¹⁶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

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¹⁷ 이렇게 하느님께서
 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¹⁸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에
 계도 생명을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2(41),2-3; 43(42),3,4(◎ 42 [41] ,3)나 참조

- ◎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
 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
 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
 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알렐루야.

복 음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18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¹¹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¹² 샅
 끈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¹³ 그는 샅
 끈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¹⁴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¹⁵ 이는 아버
 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
 놓는다. ¹⁶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18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3일

부활 제4주간 화요일

제1독서 <그들은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19-26

그 무렵 19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21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22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23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했다. 24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25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26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일 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7(86),1-3.4-5.6-7(◎ 117 [116],1-7)

-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또는 ◎ 알렐루야.)
-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
- 나는 라합과 바빌론도 나를 아는 자로 여긴다. 보라, 에티오피아와 함께 필리스티아와 티로를 두고, “그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하는구나. 시온을 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

-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 가며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샘은 모두 네 안에 있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2-30

²²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²³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²⁴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²⁵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²⁶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²⁷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²⁸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²⁹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³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4일 수요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제1독서 <마티아가 뽑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5-17.20-26

15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 가량 되는 우리가 모여 있었다. 16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7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

20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22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3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24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25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26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3(112),1-2-3-4.5-6.7-8(◎ 8 참조)

- ◎ 주님은 그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셨네. (또는 ◎ 알렐루야.)
-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네. ◎
-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
- 억눌린 이를 흙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힌 이를 잣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그를 한자리에 앉히시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5일

부활 제4주간 목요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3-25

13 **바로**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6 그러자 바로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17 이 이

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 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¹⁸ 그리고 약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시고, ¹⁹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²⁰ 그때 까지 약 사백오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 주시고, ²¹ 그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서는 벤야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²²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²³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²⁴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²⁵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도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9(88), 2-3, 21-22, 25와 27(◎ 2ㄱ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내 손이 그를 붙잡아 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라. ◎
- 내 진실 내 자애가 그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이 들리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

복음 환호송

묵시 1,5 참조

- ◎ 알렐루야.
-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보내는 이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6-2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8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19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 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6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Ⅳ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26-33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가 회당에서 말하였다.

26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었습니다.

27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28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9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30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31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32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33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이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

를 낳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6-7.8-9.10-11(◎ 7ㄷ)

- ◎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또는 ◎ 알렐루야.)
-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 나에게 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부수고, 용기그릇 바수듯 바수어 버리리라. ◎
- 임금이여, 이제는 깨달아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 발에 입 맞추어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7일
부활 제4주간 토요일

제1독서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44-52

⁴⁴ 그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⁴⁵ 그 군중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⁴⁶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⁴⁷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⁴⁸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⁴⁹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⁵⁰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⁵¹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⁵²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8(97),1,2-3ㄱ,3ㄷㄹ-4(◎ 3ㄷㄹ)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8,31-3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7-1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⁷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⁸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¹³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¹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8일
부활 제5주일

제1독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6,1-7

¹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²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³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⁴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⁵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⁶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⁷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퉁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2독서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4-9

사랑하는 여러분, 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⁵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⁶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⁷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⁸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⁹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²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³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⁵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⁶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⁷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⁸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

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¹¹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¹²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19일
부활 제5주간 월요일
(교육 주간)

제1독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4,5-18

그 무렵 이코니온에서는 ⁵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⁶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 갔다. ⁷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⁸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앓은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⁹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¹⁰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¹¹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¹²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¹³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¹⁴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¹⁵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⁶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¹⁷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 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 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¹⁸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5(113 하),1-2,3-4,15-16(◎ 1ㄱ- 참조)

- ◎ 주님, 저희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저희가 아니라, 주님,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옵니다.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되리이까? ◎
- 우리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셨네. 저들의 우상은 은과 금, 사람 손이 만든 것이라네. ◎
-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 땅은 사람에게 주셨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4,26

- ◎ 알렐루야.
-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1-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¹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22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26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0일 부활 제5주간 화요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4,19-28

그 무렵 19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20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21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22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24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25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26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27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28 그리

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10-11.12-13ㄱ.21(◎ 12 참조)

- ◎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 세세에. ◎

복음 환호송

루카 24.46.26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7-31 ㄱ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⁷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²⁸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²⁹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³⁰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³¹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1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

제1독서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1-6

그 무렵 ¹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²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³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 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⁵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⁶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2(121),1-2,3-4ㄱ나,4ㄷ르-5(◎ 1 참조)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
-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6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2일

부활 제5주간 목요일

제1독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7-21

그 무렵 7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8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12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

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¹³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¹⁴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¹⁵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¹⁶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¹⁷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¹⁸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¹⁹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²⁰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²¹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6(95), 1-2, 7, 24-3, 10(◎ 3 참조)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 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9-1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3일

부활 제5주간 금요일

제1독서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22-31

그 무렵 22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23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24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5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26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27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28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9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 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³¹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7(56),8-9,10-12(◎ 10ㄱ)

- ◎ 주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제 마음 든든하옵니다, 하느님. 제 마음 든든하옵니다. 저는 노래하며 찬미 하나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깨어나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
- 주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겨레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자애 크시어 하늘에 이르고, 당신의 진실 크시어 구름에 닿나이다. 하느님, 하늘 높이 오르소서. 당신 영광을 온 땅 위에 드러내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5,1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2-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²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¹³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¹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¹⁵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¹⁶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¹⁷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4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6,1-10

그 무렵 ¹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써, ²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³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⁴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 주며 지키게 하였다. ⁵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 갔다.

⁶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⁷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⁸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 갔다. ⁹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¹⁰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0(99),1-2.3.5(◎ 1)

-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복음 환호송

콜로 3,1

- ◎ 알렐루야.
-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8-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좋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5일
부활 제6주일
(청소년 주일)

제1독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5-8.14-17

그 무렵 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⁶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⁷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⁸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¹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¹⁵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¹⁶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¹⁷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6(65),1-3ㄱ,4-5.6-7ㄱ.16과 20(◎ 1)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우리나라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다음 주일에 지내므로, 오늘의 제2독서와 복음 대신에 부활 제7주일의 것을 봉독할 수 있다.>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15-18<또는 4,13-16>

사랑하는 여러분, ¹⁵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¹⁶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¹⁷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¹⁸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5-21<또는 17,1-1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⁵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¹⁶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¹⁷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¹⁸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¹⁹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²⁰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²¹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

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6일 월요일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제1독서 <주님께서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6,11-15

¹¹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¹²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¹³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¹⁴ 티아티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¹⁵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9.1나드-2,3-4,5-6과 9나(◎ 4가)

- ◎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
-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 치고 비파 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
-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26—16,4ㄱ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⁶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²⁷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16,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²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³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7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

제1독서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6,22-34

그 무렵 필리피의 ²² 군중이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²³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²⁴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꼬를 채웠다.

²⁵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²⁶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²⁷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²⁸ 그때에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²⁹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³⁰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³¹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³²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³³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³⁴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나.2ㄱ과 3.7ㄹ-8(◎ 7ㄴ 참조)

- ◎ 주님,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복음 환호송

요한 16,7.1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5-1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⁵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⁶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⁷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⁸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⁹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¹⁰ 그들

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¹¹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8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제1독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7,15.22—18,1

그 무렵 ¹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²²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²³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²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²⁵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²⁶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²⁷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²⁸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²⁹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³⁰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던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³¹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³²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33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34 그때에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18,1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8,1나ㄷ-2.11-13ㄱ나.13ㄷ-14ㄱ나ㄷ

- ◎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또는 ◎ 알렐루야.)
-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
-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16 참조

- ◎ 알렐루야.
-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29일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제1독서 <바오로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고, 회당에서 토론을 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8,1-8

그 무렵 ¹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²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퀼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 아퀼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³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⁴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⁵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⁶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의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⁷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⁸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8(97),1,2-3가,3다르-4(◎ 2 참조)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18; 16,2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6,16-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6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7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18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30일

부활 제6주간 금요일

제1독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8,9-18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9 어느 날 밤 주님께서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11 그리하여 바오로는 일 년 육 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2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들 고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13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

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⁴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 주겠소. ¹⁵ 그러나 말이 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¹⁶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¹⁷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¹⁸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켈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7(46), 2-3, 4-5, 6-7(◎ 8ㄱ)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그분은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겨레들을 우리 발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상속의 땅을 골라 주셨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주셨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복음 환호송

루카 24, 46, 26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 20-23ㄱ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1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싸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22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싸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31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제1독서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신다.>

▣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18<또는 로마 12,9-16>

14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5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6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17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18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 버려, 네가 모욕을 겪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이사 12,2-3.4ㄴㄷ.5-6(◎ 6ㄴㄷ)

-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복음 환호송

루카 1,45 참조

- ◎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9-56

³⁹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⁴⁰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드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⁴³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⁴⁴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⁴⁵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⁴⁶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⁴⁷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⁴⁸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⁴⁹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⁵⁰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⁵¹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⁵²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⁵³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⁵⁴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⁵⁵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⁵⁶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